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옥동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 이순호 기자 | ⌚ 승인 2026.10.22 17:21

| 안동 청사 6층서 화재 가상 훈련...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병행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국제아이저널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국제아이저널

[국제저널 = 이순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21일 안동지사 청사에서 안동소방서 옥동 119안전센터와 함께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청사 6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화재 신고, 직원·민원인·수급업체의 대피, 화재 초기 진압, 합동 진화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절차로 진행됐다.

또한 소화기와 소화전 등 소화 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심장제세동기 교육도 병행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박승표 지사장은 "방문 민원이 많은 청사 특성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대비한 평소 대피 훈련과 초기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지속적인 점검과 훈련을 통해 안전 공백을 없애고, 지역민과 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청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